

세계지방자치동향



- (독일) 독일 지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현황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COVID-19대책
- (미국) 텍사스 주 Dallas County의 COVID-19 현황 및 대응
-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COVID-19 대응과 임파워먼트
: 홋카이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를 사례로
- (일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일본 정부 및 도쿄도의 경제대책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COVID-19 대응과 임파워먼트 : 홋카이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를 사례로

개요

- 일본은 COVID-19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 시간을 요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리후생을 담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임파워먼트(역량강화)를 발휘하고 있음
- 특히 홋카이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요청보다 앞서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임파워먼트는 중앙정부의 정책 마련과 실행을 전인하는 계기가 됨

COVID-19 감염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동향

- NHK에 따르면 2020년 4월 9일 오전 3시, 현재 일본의 확진자는 4,982명(유람선 제외)임. 4월 8일은 전국적인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음. 특히 동경은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감염자가 급증함
- 2020년 4월 7일, 아베 총리는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동경 등 7도부현을 대상으로 COVID-19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긴급사태선언」을 선포. 선언의 효력은 5월 6일까지이며, 동경,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을 그 대상임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7도부현 지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휴업 요청에 있어 2주 정도 연기해줄 것을 타진함. 지방자치단체가 휴업 요청에 따라 발생할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이를 거부함
- 한편, 아이치현의 오오무라 지사는 현내에서 COVID-19 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0일 오후, 자주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하고 현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의 자속을 요청. 또한 중앙정부에 대해 COVID-19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긴급사태선언」의 대상으로 아이치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

| 표 1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동향

| 일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동향 |
|--------------|--------------------------------------|
| 2020년 2월 27일 | 제15회 COVID-19대책본부 초중고 일제 휴교 요청 |
| 2020년 2월 28일 | 홋카이도 「COVID-19긴급사태선언」(2월 28일~3월 19일) |
| 2020년 3월 12일 | WHO COVID-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 |
| 2020년 3월 19일 | 오사카 - 효고현 왕래 자제를 요청, 3월 20일~22일 연휴기간 |
| 2020년 3월 25일 | 동경, 주말 외출 자제 요청 "감염폭발 중대국면" 선언 |
| 2020년 3월 27일 | 15개현이 동경으로의 이동 자속 요청 |
| 2020년 3월 28일 | 아베 총리 COVID-19 대응 및 추가 경제대책 설명 |
| 2020년 4월 7일 | 아베 총리7 도부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 |
| 2020년 4월 8일 | 전국 지사회 긴급대책본부 손실 보상요구 긴급 제언 |

홋카이도 : 지역 특성에 따른 선제적 이동 제한

- 홋카이도내에서 2020년 1월 28일,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홋카이도내 광범위에서 확진자 발생. 또한 1월 27일, 전시회에 참가한 6명의 집단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함
- 대도시로 집결 후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홋카이도 특유의 도시 구조상 문제에 입각하여 확산 속도를 억제할 대책이 요구됨
- 2020년 2월 28일, 스즈키 지사는 「COVID-19긴급사태선언」(2월 28일~3월 19일)을 선포하여 외출 자제 요청
- 2020년 3월 18일, 스즈키 지사는 「COVID-19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폭발적인 감염확대, 의료붕괴는 회피했다고 긴급사태의 효과를 설명함
- 2020년 3월 19일,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실시하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실행하는 「홋카이도 모델」의 확립을 목표로 「COVID-19긴급사태선언」을 종료함
- 2020년 3월 20일부터는 COVID-19감염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홋카이도민과 사업자가 단결하여 대응해가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함



| 그림 1 | 긴급사태선언



| 그림 2 | 긴급사태선언 효과 설명

와카야마현 : 지역의료 유지와 병원감염 극복후 안전선언

- 2020년 2월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와카야마현)에서 이를 뒤인 2월 15일, 남성 외과 의사에 이어 같은 외과에서 일하는 남성 의사(50대)와 그의 아내(50대), 입원 환자의 남성(60대)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 니사카 와카야마현 지사는 병원감염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사 동료와 입원환자로 감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은 의사, 간호사, 직원, 입원환자, 관련업체등 총 474명의 PCR 검사를 완료함. 감염이 확인된 5명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됨
- COVID-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은 2020년 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폐쇄했던 외래진찰을 재개함
- 이토 병원장은 2020년 3월 4일, “오늘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공헌하고 싶다”고 병원의 안전을 선언함
-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은 지역 연계과 및 의료 상담과, 방문 간호스테이션, 주택 개호지원 사업소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와카야마현의 고령화는 32%)에 대처해야 함. 따라서 니사카 와카야마현 지사와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은 업무 재개를 위해 연계함
- 와카야마현은 인구에 비해 많은 PCR 검사를 실시함.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을 누구나 신뢰하여 조속히 재개하기 위함. 그리고 확진자가 근무하던 콜센터를 하루 빨리 재개하기 위해, 일시에 다량의 PCR검사를 실시함



| 그림 3 | 와카야마현의 PCR검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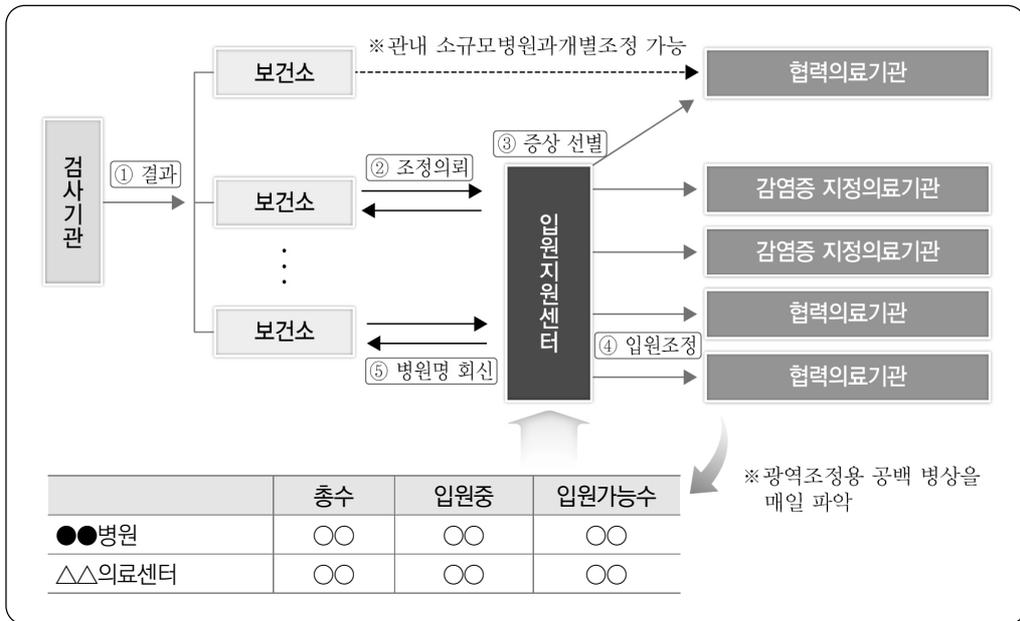
| 그림 4 | 병원폐쇄후 병원의외부 진료



| 그림 5 | 사이세이카이 아리타 병원 안전선언

오사카부 : 독자적 전문가회의와 확진자 병상 확보

- 감염 확대와 우려로 인해 2020년 3월 19일,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는 3월 20일~22일 연휴 기간 동안 오사카부-효고현간 왕래의 자제를 요청함
- 2020년 3월 12일, 제1회 오사카부 COVID-19 대책 본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COVID-19 확진자 현황, 확진자 상황을 감안한 향후의 대응, 향후의 의료 제공 체제에 관해 논의함
- 오사카부는 독자적으로 입원 지원센터를 설치함.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을 파악하여 광역적으로 입원 조정을 전담함
- 입원 조정 대상 :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10개 병상 이상이 제공 가능한 협력 의료 기관, 지역 중점병원 등(그 외 의료기관의 여유 병상의 상황도 보건소를 통해 파악)



| 그림 6 | 오사카부의 입원 지원센터와 의료기관 연계도

- ⑤ 의 회신에 따라 각 보건소는 지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환자의 입원을 조정함. 증증자는 PCR 검사 결과 대기 단계에서 입원 지원센터에 문의함. 향후 증증자 입원 시설 확보와 광역 조정을 위해 입원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 (조정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함. 조정 대상 의료기관 이외는 광역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각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입원을 조정하여도 무방함

시사점

- 일본은 COVID-19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됨
-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임파워먼트(역량강화)를 발휘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홋카이도는 도민의 거주와 이동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을 제한하여 감염확대를 방지함. 소위 우한의 봉쇄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감염확대를 회피함
- 와카야마현은 고령화율이 높고 콜센터 담당자가 감염됨에 따라 대량의 PCR검사를 실시함. 또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도 현과 연계하여 조속히 안전선언을 함
- 오사카부는 증증자 대처와 확진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전문가회의를 통해 입원 지원

센터 설치.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광역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자료출처

- 니혼테레비 NEWS24 <https://www.news24.jp/>
- 동경신문 <https://www.tokyo-np.co.jp/>
- 마이니치신문 <https://mainichi.jp/>
- 사이세이카이 아리다 병원 <http://www.saiseikai-arida.jp/index.html>
- 아사히신문 <https://www.asahi.com/>
- NHK <https://www3.nhk.or.jp/news/>
- 오사카부 <http://www.pref.osaka.lg.jp/default.html>
- 와카야마현청 <https://www.pref.wakayama.lg.jp/index.html>
- 요리우리신문 <https://www.yomiuri.co.jp/>
- 일본경제신문 <https://www.nikkei.com/>
- 홋카이도신문 <https://www.hokkaido-np.co.jp/>
- 홋카이도청 <http://www.pref.hokkaido.lg.jp/index.htm>
- 히타카신보 <https://www.hidakashimpo.co.jp/news1/>

배 윤 통신원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강사)